

제 1 부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



성경과 상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성경 이야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담 및 치유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접근 방식은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 치료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이야기 상담과 다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

1. 성경과 심리상담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다양한 기독교 상담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비록 학문적인 체계는 결여되어 있지만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경이 상담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성경의 저자들은 교리적 · 신학적 관심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목회적 관심이 지대하였기 때문에 교인들의 영혼과 삶의 치유와 상담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1) 상담에서의 성경 사용

상담에서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성경 사용을 학문적으로 시도한 사람은 1930년대 R. C. 캐벗 Cabot과 R. L. 딕스 Dicks였다. 그 후 50년대부터 W. 오츠 Oates, C. 와이즈 Wise, E. 투르나이젠 Thurneyesen, J. 애덤스 Adams, G. 콜린스 Collins, L. 크랩 Crabb, T. 오덴 Oden, W. 오글즈비 Oglesby, D. 캡스 Capps 가, 국내에서는 박종수, 양유성, 이관직, 전요섭 등이 상담에서의 성경 사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상담 학자들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연구와 접근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 쪽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19세기 말 K. 하제^{Hase} 등의 성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같은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해서 현대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병리적 해석을 하면서부터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를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을 심리학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F. C. 그랜트^{Grant}의 논문, 성령의 심리학적 연구(*Psychological Study of the Bible*)가 나온 이후의 일이다.

시편의 ‘진리’는 다윗의 저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과 모든 사람들의 심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¹⁾ 시편의 저자들은 죄와 용서, 해방과 기쁨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이며 주님 안에서의 인간 영혼의 심충을 잘 관찰했다. E. 굿이너프^{Goodenough}도 그의 책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Toward a Mature Faith)*(1955)에서 심리학적 성서해석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심리학적 비평은 성서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현대 독자들은 심리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다.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은,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심리학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상담은 성경의 관점과 권리를 적용할 때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상담의 지도 원리를 제시할 수 있고 주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

1) F. C. Grant, “Psychological Study of the Bible,” in *Religions in Antiquity: Essays in Memory of R. Goodenough* ed., J. Neusner, Leiden Brill, 1968, 112.

이다. 인간은 그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로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죄의식으로 고뇌하는 영혼, 죽음의 두려움으로 체험하는 좌절과 환멸, 끊임없는 불안과 무의미로 우울해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구절을 직접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뒷부분에 부록형식으로 삶의 갖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열거해 놓고 적용할 수 있는 성구들을 추천하는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 콜린스는 “상담 중 유익하게 사용할 만한 참고 성구들”이라는 표에서 불안, 두려움, 분노, 실망, 죽음, 질병 등 다양한 상황을 열거하고 그에 합당한 성구들을 제시하고 있다.²⁾

그런데 크랩이 밝힌 대로, 많은 상담자들은 성경이 상담의 온전한 침서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³⁾ 전요섭은 세속적 심리이론에 성경구절만 덧붙이는 것, 상담자가 성경에 무지하여 그것을 오용하는 것, 내담자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것, 성경에 대한 미신적 견해와 부적절한 적용 등⁴⁾을 상담에서 성경을 사용할 때의 문제로 지적한다.

2) 성경 사용과 성경 해석

사회구조가 단순한 시대에는 사람들의 문제도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러나 현대 후기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2) 정동섭 역, *교회지도자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 서울: 두란노, 1984, 41–43.

3) 윤종석 역, *인간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1993, 97f.

4) 전요섭 역, “목회상담에서 성경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결신학연구*, 성결대, 13, 1988, 203–219.

문제들을 생산해 낸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 개인주의화되어 공감대를 상실해 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문제분석이 필요하고 성경의 적용도 이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의 적용문제는 성경의 해석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성경을 보다 심도 깊게 해석하여 성경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되면 상담상황에 적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고 보다 깊은 문제의 원인도 밝혀낼 수 있다. 성경 해석 분야는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였다. 때로는 성경의 문자적·역사적 의미가 선호되기도 하고 때로는 알레고리적 영적 해석이 주도적인 방식이 되기도 하였다. 20세기는 역사 원리가 성경 해석의 지도 원리가 되면서 성경은 과거의 책이 되어 현재의 삶과 큰 괴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원리에 따라 교육 받은 신자들은 역사적인 지식은 풍부하지만 현실적 삶에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한다. 이 역사비평방식은 또한 성경 본문을 부분 부분 절단함으로써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여 성경 본문의 전체적이며 유기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20세기 말부터 등장한 문학비평방식은 역사비평방식이 가진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경 해석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그 문학적 장르에 따라 전체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초월적 세계와 영적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서사비평은 문학비평의 일종으로서 성경의 본문을 전체적인 이야기로 읽으면서 성경 본래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은 무엇보다도 성경 이야기의 본질과 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점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2. 성경 사용 원리

성경 이야기를 분석하기 전에 상담에서 성경이 사용되는 원리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193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상담에서 사용하는 원리와 방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D. 캡스는 성경이 상담에서 사용되는 원리를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성경 사용 시 내담자의 특별한 필요와 환경에 맞추어야 한다.

둘째, 성경은 내담자의 신체적·심리학적 한계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사용해야 한다.

셋째, 성경 사용은 상담 원리나 방법들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상담자는 성경의 특정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현시적 능력을 인식해야 한다.⁵⁾

그러나 위의 원리에 대한 반론도 심하다. E. 투르나이젠은 성경 본문이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환자의 필요를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견해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분석하는 역동적 심리학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 대표적 학자는 J. 애덤스인데 그는 도덕적·교훈적 성경 사용을 주장한다. 그의 입장은 보수적 관점을 대변하는데, 그에 의하면 상담에서 성경구절은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정되어야 하나 선정된 성경구절은 분석적 가치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선정된 성경구절은 내담자의 내면적·심리적 갈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의 죄를 고소하고 도덕적 행위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 애덤스는 내담자의 심층적 갈등은 탐색할 필요가 없고 그 탐색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

5) D. Capps, "Pastoral Use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82–84.

6) Ibid., 83.

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와 마찰을 일으키는 내담자의 행위를 찾아서 성경을 사용하여 회복시키면 된다고 보았다. 애덤스의 방식은 다소 시대에 뒤진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좀 더 섬세하고 관대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포스트모던^{탈근대주의} 시대의 특징으로 문제해결도 옛날처럼 엄격한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선호한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상담 현장에서도 상담자의 일방적인 권위와 지도를 따르기보다 내담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이 기독교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애덤스가 제시한 성경의 충족성은 만족되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에서 성경의 진리는 기초이며 원리가 되어야 한다. 물론 성경을 어떻게 상담에 적용하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는 성경 해석학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학자들은 애덤스의 견해와는 달리 성경구절 선정에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주제적 관련성보다는 역동적 관련성을 더 중시했다. 예를 들면, 이혼 문제를 다루는 데 이혼에 관한 성경구절이 반드시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신에 예수의 비유나 바울의 서신 중에서 내담자의 내면적 갈등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구절들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성경구절을 제시하거나 적용하는 방식을 넘어서 내담자의 심리에 대한 역동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사실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역동적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역동적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 해석에서 하나의 교훈이나 교리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이야기의 역동성을 살려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성경 사용의 네 번째 원리는 특별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는 상담에서 내담자의 내적 역동성 분석에 치중했지